

경상도 읍치 공간체계의 2면성

- 상징적 체계와 실질적 체계 -

Two faces of space order in Upchi : case study in Geongsang-namdo

도도로키 히로시(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hstod@hanmail.net)

중앙집권적인 지방통치구조를 가졌던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치에 직선적으로 연결하는 관도를 지정, 운영하였다. 그래서 각 읍치로부터는 서울로 떠나는 공식적인 길, 즉 '거경대로'가 존재하였다. 이것들은 당시의 읍지도에 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거경대로'는 굵고 빨간 선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고을과 수도를 연결하는 '탄탄대로'와 같은 인상을 가지게 하였다.

고지도를 보면, '거경대로'는 읍치의 현관문이 되는 부분에서 읍치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읍치 안의 구조상 많은 경우 그 현관문은 읍치의 남쪽 출구가 된다. 읍성이 있을 경우 그것은 남문이 해당되는 것이다. 한양 도성으로부터도 승례문이 현관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 한양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나가는 의주대로는 서대문을 나가서 무악재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승례문을 정식 출입문으로 삼았던 것은 역시 현관문을 정식루트로 삼았기 때문이다.

경상도 읍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도의 통과지점에 있는 읍치라고 해도 관도는 현관문에서 들어가고 나가게 하도록 고지도에 그려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풍수적인 택지로 고을이 입지했을 경우 남쪽만 지형상 벌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평야나 대지상의 고을 예를 들어 상주나 밀양, 홍해와 같은 경우에도 고지도에서는 관도를 일부러 남문을 돌아가도록 기술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통상 교통로로서는 매우 불자연한 형태여서, 사실 구한말의 지형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경로는 아예 없거나 소로로만 묘사되어, 읍내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길이 대신 그려져 있을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현관문에 상징성을 부여시킨 고지도와 교통편의를 중요시한 현실과의 공간구조상 괴리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지도에 그려진 읍치의 영역과 실제 지도상에 나타나는 읍취락 영역은 크게 괴리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 특히 읍성 안이 읍치 전체인 양 고지도에 써 있어도, 실제 취락영역은 읍성과 관계없이 설정되었을 경우도 많다. 이처럼 고지도에 그려진 '상징적 공간구조'와 '실질적 공간구조'는 큰 괴리가 보이는 것이다.